

'관광지 잠녀' 등 특색 간직한 바다

발로 걷는 제주잠녀-서귀포 수협 종합

등록 : 2009년 01월 12일 (월) 16:30:40
최종수정 : 2009년 01월 12일 (월) 16:30:4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태흥1리와 2리를 나누는 '봉안미'

물질 잠녀 75%가 60대 이상...70대 이상 고령잠수 수가 30·40대 9배 이르러
태흥2·3리 적극적 어장관리로 전복종패 합격점, 옛 명성 없어도 바다 의존도 여전

“잡을 거야 있겠지만 이제는 잠녀가 없어”

먼길을 돌아 서귀포 수협이 관리하는 구 서귀포시와 남원읍 19계 어촌계를 둘러봤다.
서귀포 수협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잠녀는 모두 894명.<표 참조>

잠녀 수가 10명(토평동·남원읍 하례리)에 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136명(감정동)이 넘는 잠녀가 바
다를 지키는 곳도 있다.

60대 이상 고령 잠녀가 전체 75.5%인 675명이나 된다. 70·80대만 261명인데 반해 30·40대 잠녀는 29
명으로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물질을 할 여력은 남아있는 것과 달리 앞으로 10년 후에는 잡녀가 없어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 강정-바닷잡이어장

19개 어촌계가 지키고 있는 각각 특색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감굴 농업 등 반농반어 형태의 잡녀가 많다는 점이다.

잡녀마을로 역사와 함께 잡녀 명맥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환동이나 자리돔축제와 어촌체험마을 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보목동, 황금어장인 지귀도와 함께하는 위미1리, 남쪽 천초 바다로 식용갈래곰보 일본 수출 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위미2리가 그렇다.

전북종패 사업에 있어 '합격점'을 받고 있는 태흥2·3리는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어장 관리, 바다에 대한 애착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모범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한 때 200명이 넘는 잡녀로 북적였던 남원리 바다에서 더 이상 몇 명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3~4년 키워 잡는 기다림을 통해 바다와 공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뜻하다.

관광명소가 많은 산남인 만큼 바다 역시 그 영향을 톡톡히 받았다.

관광미항 개발로 손바닥만한 어장만 남은 서귀동 잡녀들이나 관광객 발길이 잦은 중문동·색달동 잡녀들은 '관광지 잡녀'라는 별칭을 붙여도 좋을 만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조를 이뤘 물질을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판매 역시 프로급이다. 한창 때면 없어 못 팔 정도로 흥이 난다.

모든 바다가 다 풍성한 것은 아니다. 위미2리 상군 잠녀의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보목리 상군 잠녀가 1년 물질 작업으로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데 반해 태흥1리 잠녀들은 이전 '나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참여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툇작업을 할 때면 지귀도에서 반달 이상 먹고 자는 것을 마다 않는 위미1리 잠녀들과 달리 바다어장만 택시로 30분 거리가 되는 하예동은 바다 작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반해 망사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소라 등 잠녀들이 건져올린 물건량은 강정>보목>위미>법환 순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강정 바다는 속 앞이가 심했다.

그래도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고, 고스란히 세월을 타고 있는 잠녀들이 남아있다.